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2, June 2019, pp.292~307.*
Copyright©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고려시대 풍탁(風鐸)의 전개와 독창성

이영선
한성백제박물관
Corresponding Author : ysun263@gmail.com

국 문 초 록

불교에서는 부처의 위엄, 부처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불상과 그 주변을 아름답게 꾸몄다. 여기에 이용된 각종 불구를 장엄구라고 한다. 장엄구는 불상을 꾸미는 장신구, 광배, 보개, 번 등 다양하며, 건물 밖에 걸었던 풍탁 또한 불교 장엄구의 일종이다.[1]

풍탁은 지금까지도 사원에서 널리 쓰이는 불교 장엄구이다. 중국에서는 낙양 영녕사 목탑, 둔황석굴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6세기 무렵에는 이미 풍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불교사원은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한 것과 동시에 지어졌으므로 사원 건물에 매다는 풍탁도 사원 조성과 그 시작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가장 이른 풍탁은 백제 미륵사지 〈금동풍탁〉이다.

우리나라 풍탁은 입면에 따라 종형과 제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옆 변의 형태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종형과 제형 풍탁은 시대가 흐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고려시대 풍탁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고려시대 풍탁은 이전의 형식, 구조, 의장 등을 계승하면서도 기술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자유로우면서도 과하지 않은 의장을 표현하였다. 특히 고려 소종의 입상연판문대(立狀蓮瓣文帶),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는 불문(黻文), 고려 향로 속 삼환문(三環文)과 범자문(梵字文), 석조물의 창호문(窓戶文) 등 동 시기의 불교 미술품과의 교류를 짐작하게 하는 의장은 고려시대 풍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이처럼 고려 풍탁은 특정한 규격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그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확인된 우리나라 풍탁을 조사한 결과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이 가장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풍탁 연구는 다른 불교 장엄구에 비해 미진한 실정이기에 가장 많은 고려시대 풍탁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풍탁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풍탁의 형식을 알아보겠다. 이를 토대로 고려시대 풍탁의 시기별 전개와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최응천·김연수, 2003, 『금속공예』, 솔, p.193.

주제어 풍탁, 고려 풍탁, 숭선사지, 월남사지, 사뇌사지

투고일자 2019. 03. 29 ● **심사일자** 2019. 04. 22 ● **게재확정일자** 2019. 05. 06

Ⅰ. 머리말

풍탁은 방울의 일종으로 사원 건축에 매달았던 불교 장엄구이다. 경전에서는 탁(鐸), 령(鈴) 등으로 언급되었으며 탁이라는 표현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중국 고악기로 알려진 탁은 하부에 굴곡이 있는 합와형(合瓦形)의 몸체 안에 추를 매단 방울이다. 현존하는 풍탁 중에는 이와 같은 형태가 많으며, 이른 시기부터 등장한 형태이다. 이로 미루어보아 건물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불교사원의 방울을 지칭할 때는 '풍탁(風鐸)'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우리나라 풍탁은 그간의 발굴조사를 통해 많은 수가 축적되었지만 다른 불교 미술품보다 연구가 미진한 편이었다. 현존하는 풍탁은 출토지가 명확한 발굴조사 자료와 동 시기 미술품과의 비교를 통해 대략적인 제작 및 사용 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고려시대 풍탁의 전개와 독창적인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조성 배경

사원 속 건물이나 탑은 풍탁을 매달은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에는 '탑묘마다… 보탁이 울리고',[2] '보탁을 수없이 달았으며'[3]라고 언급하고 있다.

언제부터 이러한 모습의 사원 건물과 탑이 시작된 것일까.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와 『역대삼보기(歷代三寶紀)』에는 중국 북위시대의 사원인 낙양 영녕사(永寧寺)와 절 안에 있었던 구층목탑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4] 영녕사는 당시 최대 규모의 사원이었는데, 희평원년(熙平元年, 516)에 건립되어 영희2년(永熹二年, 534)에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한다. 두 기록에 의하면 영녕사 목탑은 상륜과 지붕 모서리에 풍탁을 달아 장엄하였으므로 적어도 534년 이전부터 사원 건물에 풍탁이 매달리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제시대에 조성된 남향당산 석굴 화엄동의 〈아육왕탑〉, 둔황석굴 254호굴 벽화 속 〈누각식 이중탑〉(그림 1) 등에서도 풍탁을 매달은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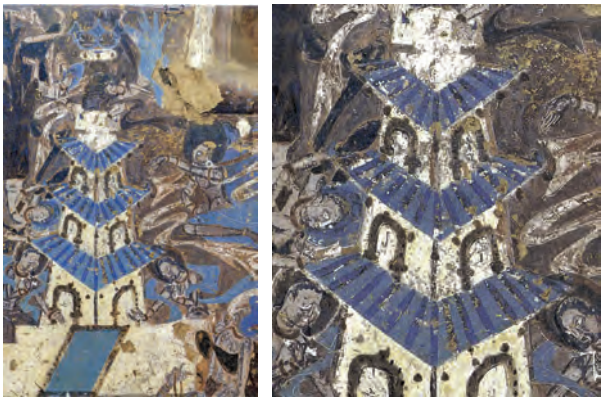


그림 1 둔황 254호굴 〈누각식 이중탑〉 (敦煌研究院 2001: 29).

불교에서 풍탁은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경전과 기록, 그림 등에 묘사되는 것일까.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에는 불교의 탁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 풍탁이 불교문화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일체경음의』에 따르면 풍탁 소리는 부처의 말씀을 대신한다.[5] 영녕사는 사원의 규모만큼 탑도 크게 조성하였으며 탑을 장엄한 풍탁의 수도 많았다. 기록에 의하면 풍탁 소리가 10여리 밖까지 퍼졌다고 하는데, 풍탁 소리가 부처의 말

2 一一塔廟 各千幢番 珠交露幔 寶鈴和鳴…. (『妙法蓮華經』 序品).

3 數幢番 以爲嚴飾 垂寶瓔珞 寶鈴萬億 而懸其上…. (『妙法蓮華經』 見寶塔品).

4 中有九層浮圖一所架木爲之擧高九十丈…浮圖有九級角角皆懸金鐸合上下有一百三十鐸…至於高風永夜寶鐸和鳴鏗鏘之磬聞及十餘里…. (『洛陽伽藍記』 永寧寺) 至孝明帝熙平元年靈太后胡氏造永寧寺起九層木浮圖高九十丈上有寶刹復高十丈去地千尺離京百里即遙見之…至於秋月永夜高風寶鐸和鳴聲響諧韻中霄晃朗昱爍空鏗鏘之音聞十餘里…. (『歷代三寶紀』 卷九).

5 經言寶鐸者宣揚法音…. (『一切經音義』).

씀이라면 영녕사 주변에는 부처의 가르침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풍탁은 부처를 모신 공간을 시각적으로 장엄하고 소리를 통해 부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사원과 그 주변을 부처의 성스러운 세계로 만드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Ⅲ. 풍탁의 구성과 장엄 방식

1. 구성

풍탁을 나타낸 불화, 석조물, 금속탑 등 불교 미술품에서는 공통으로 건물 처마 끝에 탁신과 풍판을 갖춘 풍탁을 매달고 있다.[6]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풍탁은 탁신, 풍판(風板), 그리고 탁신과 풍판을 연결하는 연결쇠로 이루어진다(그림 2).

탁신은 몸체 상부에 고리가 있고 내부에 연결쇠를 매달았다. 고리는 원형 또는 끝을 둥글게 만 갈고리형이 있다. 탁신과 일체 또는 별도로 주조되어 붙인 것과 강진 월남사지(月南寺址) <금동풍탁>처럼 연결쇠를 이용하는 방법이 확인되었다.

연결쇠는 소리를 내고 탁신과 풍판을 연결해주는 요소이다. 길이가 짧은 연결쇠 여러 개가 서로 맞물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탁신과 닿는 부분을 높이기 위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 탁신의 하부에 '치게'라는 장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치게는 거창 천덕사지(天德寺址) <금동풍탁>, 월남사지 <금동풍탁> 등을 통해 고려시대 이후부터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풍탁과 고악기 탁의 차이는 풍판의 존재이다. 풍판은 상부에 고리를 달고 풍판 고리와 탁신 연결쇠를 연결하여 탁신 하부에 위치한다. 바람에 의해 흔들리며 풍탁의 미관을 강조하는 시각적 역할이 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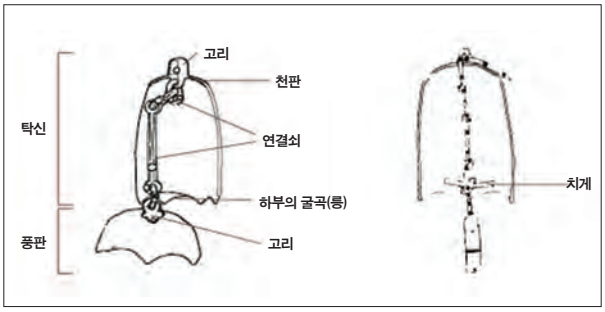


그림 2 풍탁 구성(경남고고학연구소 2005: 140. 안춘배 1987: 136을 재구성함).

2. 건축물에 따른 장엄 방식[7]

1) 목조 건축

사원 속 목조 건축물에는 불전, 강당과 같은 건물과 목탑이 있다. 이러한 건물에는 끝을 둥글게 만 못을 이용하여 풍탁을 지붕 아래에 매달았다. 그 모습은 건물의 경우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그림 3), 광주 성거사지(聖居寺址) 오층석탑 <금동천개·전각형사리장엄구>와 동아대학교박물관 <금동천개·전각형사리장엄구>에서, 목탑의 경우 경주 탑곡 <마애탑>, 삼성미술관 리움(이하 리움) <금동대탑>과 경상(鏡像) 등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건물, 목탑 등에 사용되었던 풍탁은 <표 1>과 같다.

표 1 목조 건축에 사용된 풍탁

분류	시대	풍탁
건물	삼국	황룡사지 <동제풍탁> 등
	통일신라	묘장사지 <동제풍탁> 등
	고려	봉업사지 <동제풍탁>, 장능리 유적 <동제풍탁>, 황룡사지 <동제풍탁>, 천덕사지 <금동풍탁> 등 (리움 <금동풍탁>, MET <금동풍탁>, 숭선사지 <금동풍탁>, 월남사지 <금동풍탁>)
	조선	회암사지 <동제풍탁> 등
목탑	삼국	상오리사지 <금동풍탁>, 제석사지 <금동풍탁> 등
	고려	단양 출토 <동제풍탁> 등

6 풍판은 장식성이 강하므로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능사와 부소산사지에서는 풍판만 출토되었고, 말흘리 유적에서는 탁신 19점, 풍판 129점이 출토되어 그 수가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으므로 탁신과 풍판이 함께 있는 구성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7 발굴조사 출토 풍탁은 탑지, 건물지, 강당지, 회랑지, 답도, 퇴장유구, 배수로 등에서 확인되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탑, 불전 외의 공간에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장에서는 건축물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탑지, 건물지, 강당지에서 출토된 풍탁만을 다루었다.

건물에는 풍탁을 직접 매다는 방식 외에 토수를 이용하기도 했다. 토수는 길상을 뜻하는 동물의 머리를 형상화하여 추녀 끝에 끼우는 장식물이다. 불교에서는 건물의 격을 높이기 위해 토수를 사용하였으며, 토수에 고리를 두어 풍탁을 거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리움과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이하 MET)에는 고려시대 토수와 풍탁이 일괄로 전한다. 토수를 이용해 풍탁을 걸었던 모습은 일본 서복사(西福寺)의 〈관경변상도〉(그림 4)와 〈관경서분변상도〉 등에 표현된 불전 모습과 같았을 것이다.



그림 3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변상도(호암갤러리 1993: 5).



그림 4 관경변상도(호암갤러리 1993: 27).

2) 석탑

석탑은 목탑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옥개석 모서리에 풍탁을 매달았을 것으로 보인다. 석탑의 장엄에 사용되었던 풍탁은 〈표 2〉와 같다. 탑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좁아지는 체감률을 보이므로 풍탁의 크기도 위치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현존하는 풍탁 중에는 형태가 같으면서도 크기가 조금씩 다른 풍탁이 있다. 대표적으로 사뇌사지 〈동제풍탁〉, 상명대학교박물관 〈금동풍탁〉 등이 있다. 이들 풍탁은 퇴장유구 출토품이거나 출토지를 알 수가 없어 석탑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지만 형태와 크기로 미루어보아 석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표 2 석탑에 사용된 풍탁

분류	시대	풍탁
석탑	삼국	미륵사지 〈금동풍탁〉, 〈동제풍탁〉 등
	통일신라	선림원지 〈금동풍탁〉 등
	고려	술정리 서삼층탑 〈금동풍탁〉, 미륵사지 〈동제풍탁〉 등(사뇌사지 〈동제풍탁〉, 상명대학교박물관 〈금동풍탁〉)

석탑에는 옥개석 모서리에 풍탁을 매달기 위한 풍탁공이 확인되며, 풍탁공은 옥개석을 관통하는 천공형(穿孔形),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이용한 삽입형(插入形)이 있다. 귀마루 끝에 위치하는 천공형 풍탁공은 주로 백제 석탑, 고려시대 백제계 석탑에서 나타나며, 신라 〈석주(石柱)〉에는 천공형으로 풍탁을 매단 모습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삼국시대부터 사용되던 초기 풍탁 연결 방식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삽입형 풍탁공은 석탑의 인위적인 구멍 중 옥개의 전각에 있는 구멍으로 최대 8개까지 확인된다. 이 경우 풍탁은 탑의 측면에 위치한다. 삽입형 풍탁공을 이용한 모습은 나원리 오층석탑의 〈금속탑〉, 불국사 삼층석탑의 〈금동장방형사리함〉 등과 같았을 것이다.[8]

Ⅳ. 풍탁의 형태

1. 탁신

1) 종형 풍탁

종형 풍탁에는 전통 범종형, 원통형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 정면이 통일신라시대 범종과 같이 항아리를 거꾸로 엎어놓은 모습으로 위가 좁고 배 부분이 불룩하다가

8 조은경·한주성·남창근, 2007, 「전라도 석탑의 세부 기법 고찰」『문화재』 40, 국립문화재연구소, pp.288~293.

다시 좁아지는 형태이다.[9] 천판을 포함해 2면체 혹은 3면체로 표현된다. 정면 하부에 1~2개의 굴곡이 있는데, 하나의 굴곡을 가지는 경우는 대체로 풍탁을 간략하게 표현한 부조 등에서 확인된다. 밑면은 타원형이다.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금동풍탁>(사진 1), 신라의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석주> 등 삼국시대 풍탁은 통일신라시대 창녕 말흘리 유적 <금동풍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고려로 계승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기존의 형태를 따른 1형 종형 풍탁과 정면의 옆 변이 직선화된 2형 종형 풍탁으로 전개되었다.

정면이 원통과 같고 평면이 원형인 원통형 풍탁도 종형의 범주에 포함된다. 통일신라시대부터 등장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풍탁의 보편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10] 현존하는 원통형 풍탁에서는 황룡사지 <동제풍탁>(사진 2)이 가장 이르며, 고려시대에는 안성 봉업사지(奉業寺址) <동제풍탁>(사진 16), 국립중앙박물관 <동제풍탁>(신수2651) 등이 제작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정통원년(正統元年, 1436)명 동제풍탁>, 양주 회암사지(檜巖寺址) <동제금탁> 등이 대표적이다.

2) 제형 풍탁

제형 풍탁은 종형과 달리 오면체로, 밑면은 마름모꼴이나 방형으로 나타난다. 정면은 하부에 1개의 굴곡을 갖춘 사다리꼴이며 옆 변이 직선 또는 배부른 형태로 떨어진다. 경주 황룡사지 <금동풍탁>(사진 3), 영덕 묘장사지(妙藏寺址) <동제풍탁>, 의성 빙산사지(氷山寺址) 오층석탑 <동제풍탁> 등을 통해 통일신라시대부터 등장하는 기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옆 변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퍼지는 모습인 1형과 종형처럼 배부른 옆 변을 가지는 2형이 함께 제작되었다.[11]



사진 1 금동풍탁, 백제, 높이 14.0㎝, 익산 미륵사지, 익산1, 국립익산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8).



사진 2 동제풍탁, 신라, 높이 3.8㎝, 경주 황룡사지, 황룡7, 국립경주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11).



사진 3 금동풍탁, 통일신라, 높이 5.9㎝, 경주 황룡사지, 황룡5, 국립경주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19).

2. 풍판

우리나라 풍판은 두께가 두껍지 않은 편이다. 형태는 크게 하부에 굴곡이 있는 반원형과 타원형으로 제작되었다. 반원형은 백제대 부여 능사 <금동풍판>(사진 4)이 가장 이른 사례이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의 말흘리 유적 <금동풍판>, 나말여초기의 강릉 보현사(普賢寺) <금동풍판>, 고려시대의 충주 숭선사지(崇善寺址) <청동풍판>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반원형 풍판은 금속탑, 회화 등에서 자주 확인되어 우리나라 풍판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타원형은 반원형과 함께 이른 시기에 등장하였다. 중국 둔황석굴의 수대 벽화에서도 확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의 부여 부소산사지 <금동풍판>(사진 5)을 시작으로 통일신라 말흘리 유적 <금동풍판> 등으로 이어졌다.



사진 4 금동풍판, 백제, 높이 10.0㎝, 부여 능사, 부여5342, 국립부여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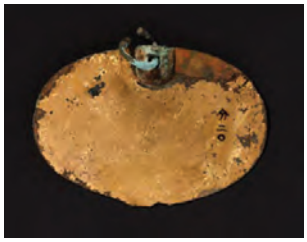


사진 5 금동풍판, 백제, 높이 8.1㎝, 부여 부소산사지, 부여20, 국립부여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9).

9 최응천·김연수, 2003, 앞의 책, p.47.

10 이영선, 2014, 「고려시대 풍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8~43.

11 이영선, 2014, 위의 논문, pp.21~50.

이외에도 삼각형의 영동 영국사(寧國寺) <청동풍판>, 심엽형의 보현사 <금동풍판>, 숭선사지 <금동풍판>(청주31639)와 회암사지 <동제풍판>처럼 운문형 등이 확인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던 풍판은 풍탁이 장엄적 기능을 갖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Ⅴ. 고려 풍탁의 전개

1. 고려 전기[12]

1) 종형 풍탁

(1) 1형

리움(사진 6), MET(사진 7)에서 각각 소장하고 있는 풍탁은 탁신 형태와 의장이 같을 뿐만 아니라 일괄 유물로 알려진 <금동용두토수>마저도 일치한다. <금동용두토수>는 뭉툭한 코, 별 모양 지느러미 등이 곡성 대안사(大安寺) <광자대사비(廣慈大師碑) 귀부> 등 10세기 석조귀부와 비슷하여 고려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리움과 MET 풍탁 또한 토수와 멀지 않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두 풍탁은 1형 종형 풍탁에 해당한다. 형태적으로 안정감 있게 잘 만들어졌으며 통일신라시대 범종을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의장이 특징이다. 정면으로 보았을 때 상면에 2개의 곽과 4~5개의 돌기, 중간쯤에 위치한 크고 둥근 연판 등은 범종의 연곽, 연뢰, 당좌 등과 위치, 표현 모습과 유사하다.

2013년에 출토된 숭선사지 <금동풍탁>(사진 8)은 크기, 의장의 표현과 배치 등에서 리움, MET <금동풍탁>과 공통점이 많다. 숭선사지 <금동풍탁>은 발굴조사를 통해 숭선사 창건(광종 5년, 954) 당시 금당의 외관을 장식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14] 10세기 무렵으로 추정되는 리움, MET <금동풍탁>과의 상관성을 고려하면 적어도 10세기 중반 이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리움, MET, 숭선사지 <금동풍탁>과 형태, 의장 등이 유사한 풍탁으로는 호림박물관 <금동풍탁>, 호암미술관 <금동풍탁>, 국립중앙박물관 <금동풍탁>(덕수4979), 단양 출토 <동제풍탁>, 보현사 <금동풍탁> 등이 있다.



사진 6 금동풍탁, 10세기 추정, 높이 37.2㎝, 리움(미륵사지 유물전시관 2011: 32).



사진 7 금동풍탁, 10세기, 높이 38.2㎝, MET(MET 홈페이지).



사진 8 금동풍탁, 고려, 높이 28.6㎝, 충주 숭선사지, 청주31638, 국립청주박물관(국립청주박물관 홈페이지).



사진 9 동제풍탁, 고려, 높이 6.5㎝, 충남 서산, 신수2399, 국립부여박물관(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44).

12 풍탁은 제작 시기를 알려주는 명문이 없어 명확한 편년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는 무신정권기 시작인 1170년을 전후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방식을 따랐으며, 동 시기 불교 미술품과의 비교, 발굴조사 자료, 공반 출토유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풍탁의 시기를 추정하였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나가고자 한다.

13 최응천, 2014, 「세계 속의 찬란한 한국 공예명품」『제1기 국외문화재 아카데미 '국외 한국문화재 바로알기'』 강의자료집, 국외소재문화재재단, pp.10~11.

14 충청대학교박물관, 2016, 『忠州 崇善寺址 6차 발굴조사 보고서』, 충주시·충청대학교박물관, p.152.

(2) 원통형

서산 출토 <동제풍탁>(사진 9)은 원통형 풍탁으로, 폭보다 높이가 높고 2조의 돌대가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이와 비교될 만한 것으로 당(唐)대에 제작된 중국 베이징 대종사고종박물관 <동제풍탁>이 있다. 이 풍탁은 서산 출토품과 같은 형태이며 몸체에 3개의 돌대를 일정 간격으로 두르고 하부에 여러 개의 굴곡을 표현하였다. 두 풍탁이 공통으로 갖는 형태, 의장 등으로 보아 서산 출토 <동제풍탁>도 나말여초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주 출토 <동제풍탁>, 국립중앙박물관 <동제풍탁>(신수2651) 등도 서산 출토품과 흡사하다.

2) 제형 풍탁

(1) 1형

제형 풍탁 1형으로 편년될 수 있는 것은 청주 사뇌사지 <동제풍탁>(청주3570, 사진 10), 안성 장능리사지 <동제풍탁>(사진 12) 등이 있다.

사뇌사지 <동제풍탁>은 둥근 천판을 가지며 각 면에 작은 구멍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풍탁이 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금동천개·전각형사리장엄구>(사진 11)에서 확인된다. 사리장엄구의 풍탁은 풍판까지 갖추고 있으며 천판이 둥근 1형 제형 풍탁이다. 사리장엄구는 10세기로 편년되고 있어 적어도 사뇌사지 <동제풍탁>과 같은 형태가 이 무렵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뇌사지 <동제풍탁>과 함께 출토된 <동제풍탁>(청주3567~3569) 3점도 형태상 유사한 점이 확인되어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장능리사지 <동제풍탁>은 높이가 폭보다 긴 제형 풍탁으로 하부에 뚜렷한 굴곡이 있다. 이 풍탁이 출토된 유구에서 10세기로 추정되는 명문와와 11세기 중기에서 13세기 초기로 편년되는 소종이 수습되어[15] 고려 전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2형

2형 제형 풍탁으로는 동국대학교박물관 <동제풍탁>(사진 13)이 고려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풍탁은 천판 중앙에 화문으로 장식된 구멍이 있고 각 면은 2조 돌대로 둘러져 있으며 중앙에 삼원문이 투공되어 있다. 삼원문은 11세기의 국립중앙박물관 <청동향완>, 13세기 경희대학교박물관 <청동현향로> 등 고려시대 향로에서 종종 보이는 의장이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박물관 <동제풍탁>은 고려 전기 이후에 등장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풍탁은 경희대학교박물관 <동제풍탁>, 국립중앙박물관 <동제풍탁>(남산2500) 등이다.



사진 10 동제풍탁, 고려, 높이 5.7㎝, 청주 사뇌사지, 청주 3570, 국립청주박물관(국립청주박물관 2014:58).



사진 11 금동천개·전각형사리장엄구, 고려, 높이 15.7㎝, 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국립광주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



사진 12 동제풍탁, 고려, 높이 18.9㎝, 안성 장능리사지, 국립중앙박물관(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61).



사진 13 동제풍탁, 고려, 높이 14.2㎝, 동국396, 동국대학교박물관(필자 촬영).

15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안성 장능리사지』, pp.19~33, 71~73.

2. 고려 후기

1) 종형 풍탁

(1) 2형

숭선사지 <금동풍탁> 2점(숭선사지94, 청주9378, 사진 14)은 2형 종형 풍탁으로, 크기와 형태가 같아 하나의 틀에 의해 주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탁신은 위로 솟은 천판에 원통형 구멍이 뚫려 있다. 운문형 풍판에는 심엽형 투공 2개가 확인되어 장식성이 강하다.[16] 두 풍탁은 명종 12년(1182) 숭선사의 1차 중창기에 만들어진 답도유구에서 출토되었으므로,[17] 적어도 두 풍탁은 12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유사한 풍탁으로 사뇌사지 <동제풍탁>(청주3571)이 있다.



사진 14 금동풍탁, 고려, 탁신 높이 3.5㎝, 충주 숭선사지, 숭선사지94·청주 9378, 충청대학교박물관·국립청주박물관(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48,49).

(2) 원통형

고려 후기의 원통형 풍탁은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층위에서 발견된 것으로 조선시대 원통형 풍탁과의 연관성이 높다. 사뇌사지 <동제풍탁>(청주3572, 사진 15)과 봉업사지 <동제풍탁>(사진 16) 등이 있다.

사뇌사지 <동제풍탁>은 둥글고 위로 솟은 천판, 아래로 내려갈수록 퍼지는 옆 변, 4개의 ∽형 굴곡이 밖으로 뻗친 하부를 가진다. 이는 조선시대의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동제풍탁>(동국638)과 비슷한 형태이다.

봉업사지 <동제풍탁>은 편평한 천판에 정면의 옆 변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퍼지는 원통형 풍탁으로 조선시대 <정통원년명 동제풍탁>과 유사하다. 봉업사지 풍탁은 고려 전기 원통형 풍탁에 비해 조선 풍탁과 형태적인 유사성이 돋보이므로 고려 후기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사진 15 동제풍탁, 고려, 높이 4.2㎝, 청주 사뇌사지, 청주3572, 국립청주박물관(국립청주박물관 2014:60).



사진 16 동제풍탁, 고려, 높이 4.8㎝, 안성 봉업사지, 중위114, 국립중앙박물관(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70).

2) 제형 풍탁

(1) 1형

1형 제형 풍탁으로 호암미술관 <동제풍탁> 2점(사진 17)이 있다. 2점 모두 같은 크기이며 상부에 고리, 하부에 치게, 천판과 각 면에 의장이 표현되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하나의 틀로 주조하여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풍탁의 가장 돋보이는 의장은 천판을 둘러싼 장식으로, 고려 범종의 입상연판문대(立狀蓮瓣文帶)를 떠올리게 한다. 범종은 1058년 <청녕(淸寧)4년명 종>부터 입상연판문대가 표현되며, 1201년 <승안(承安)6년명 종>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18] 일부는 연판마다 여의두문, 화염문 등으로 장식성을 더하였다. 범종의

16 풍판까지 갖추고 있는 <금동풍탁>(숭선사지94)을 통해 <금동풍탁>(청주9378)은 풍판을 유실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17 충청대학교박물관·충주시, 2006, 『충주 숭선사지 발굴조사보고서』, p.64, 362, pp.649~659.

18 최응천, 2004, 「고려후기 전환기의 미술 특집 - 고려후기의 금속공예」 『강좌미술사』 2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128.

입상연판문대 전개 양상을 통해 호암미술관 <동제풍탁>은 적어도 11세기 이후부터 13세기 초반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종 입상연판문대가 보편화된 13세기 초기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호암미술관 <동제풍탁>과의 형태적 유사성이 보이고 발굴조사 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고려 후기 1형 제형 풍탁으로 보이는 예는 사뇌사지 <동제풍탁>(청주3566), 통도사성보박물관 <금동풍탁>(신수680), 개성 고려박물관 <동제풍탁>, 강릉 정암사 <동제풍탁>, 국립중앙박물관 <동제풍탁>(신수16220), 이화여자대학교 <동제풍탁>, 홍천 출토 <금동풍탁> 등이 있다.

(2) 2형

월남사지 <금동풍탁>(사진 18)은 천판이 편평하고 정면의 체감률이 큰 배부른 사다리꼴이다. 외곽에 격자문대가, 몸체 중앙에 원권 범자문이 있다. 원권 범자문은 풍탁의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풍탁 속 범자는 총 4자로, 옴(𑖌𑖼, oṃ), 아(𑖀, a), 훔(𑖤𑖼, hūṃ) 등의 삼밀진언과 브룸(𑖪𑖽𑖼, bhrūṃ)의 조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 향완 속 범자가 주목되는데, 4자의 범자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함평궁주방(咸平宮主房)명 향완>을 통해 1247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풍탁의 범자와 같은 삼밀진언은 1286년 이후에 조성된 보성 대원사 <자진원오국사천영(慈眞圓悟國師天英) 승탑>에서도 확인된다. 향완과 승탑 속 범자와의 비교를 통해 월남사지 <금동풍탁>은 13세기 중반 전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19]

천덕사지 <금동풍탁>(사진 19)은 위로 솟은 천판을 가진 2형 제형 풍탁이다. 각 면에는 창호문(窓戶文)과 당초문대가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창호문 풍탁으로, 중국 산서성에서 이와 유사한 풍탁이 확인되었다. 중국 산서성 불궁사석가탑(佛宮寺釋迦塔)의 <철제풍탁>은 요(遼)대에 제작된 것이다.[20] 따라서 천덕사지 <금동풍탁>도 고려 후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두 풍탁과 형태상 유사성을 보이는 풍탁으로는 사뇌사지 <동제풍탁>(청주3565), 파주 선유리 유적 <금동풍탁>, 경주 성동동 출토 <동제풍탁>, 상명대학교박물관 <금동풍탁>, 직지사성보박물관 <금동풍탁>, 경산 출토 <동제풍탁> 등이 전한다.



사진 17 동제풍탁, 고려, 높이 25.5㎝, 호암미술관(호암갤러리 1995:239).



사진 18 금동풍탁, 고려, 높이 23.0㎝, 강진 월남사지, 광주045051, 국립광주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



사진 19 금동풍탁, 고려, 높이 22.8㎝, 거창 천덕사지, 진위59-737, 국립진주박물관(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71).

19 성윤길, 2017,『강진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에 대하여』『문화재』 50-1, 국립문화재연구소, pp.34~35.

20 程乃莲, 2012,「应县释迦塔的风铃及其造型艺术」『山东大同大學學報』Vol.26 No.4, 山东大同大學, pp.34~36.

Ⅵ. 고려 풍탁의 특징과 독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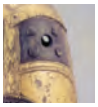
1. 종형 풍탁의 전통 계승

고려 풍탁 중에서 이전 시대의 영향 아래에 제작된 것은 삼국시대부터 등장한 종형 풍탁 1형, 통일신라시대의 원통형 풍탁과 제형 풍탁 2형이다. 특히 종형 풍탁의 비중이 높다.

1형 종형 풍탁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리움, MET, 숭선사지 <금동풍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고려 전기로 편년되므로 이전 시기의 풍탁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형태뿐만 아니라 의장도 이전 풍탁의 영향을 받았다. 범종의 연뢰, 연곽, 당좌 등을 표현하는 것은 미륵사지 <금동풍탁>과 제석사지 <금동풍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풍탁 의장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따르는 고려 풍탁으로는 리움, MET, 숭선사지, 호림박물관, 호암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덕수4979), 단양 출토 풍탁 등이 있다.

범종과 관련한 의장은 고려시대에 이르면 전통을 따르거나 재해석되었다. 백제 제석사지 <금동풍탁>의 3×3 연뢰는 그대로 이어졌지만, 미륵사지 <금동풍탁>의 1+4 연뢰, 연곽을 따른 풍탁은 가운데 연뢰가 구멍으로 대체되거나 연곽이 호형으로 변하였다. 원권 연화문은 탁신의 크기가 커진 것과 비례하여 커졌고, 세밀하고 양감이 뚜렷하게 표현되었다(표 3).[21]

표 3 종형 풍탁 의장 계승(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8, 32; 한성백제박물관 2018b: 173; 최응천·김연수 2003: 256)

시대	연뢰, 연곽		원권 연화문	
	3×3 연뢰	1+4 연뢰		
삼국시대				
고려시대				

2. 제형 풍탁의 유행

우리나라 제형 풍탁은 통일신라시대부터 등장하지만 고려시대에 이르러 보편화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고려 전(全) 시기에 걸쳐 나타나며 수량 또한 현존 풍탁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당시 널리 사용되었던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제형 풍탁이 많이 사용된 것은 동 시대 중국 풍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북송대에 제작된 중국 하북성 정중원(淨衆院) <은제육각탑>, 강소성 서광사탑(瑞光寺塔) <금은제보탑>, 요대 중국 불궁사석가탑 <철제풍탁>, <금동금탁> 등을 통해 중국에서는 10세기 전후로 탑에 제형 풍탁을 매달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말여초기 이후부터 제형 풍탁의 제작이 증가하게 된 것은 당시 많은 영향을 주었던 중국에서 제형 풍탁을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고려가 당시 유행하였던 풍탁 형태를 수용하였던 것이다.

3. 다양한 의장의 등장

고려 풍탁은 이전 시대와 달리 입상연판문대, 불문(獻文), 삼환문, 삼원문, 영락, 창호문, 범자문, 불보살상문, 화문, 동물문 등 여러 의장을 제약 없이 표현하여 풍탁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몄다. 의장은 사원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미술품인 범종, 불상, 불화, 향로, 탑 등에서 확인되는 것들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점은 풍탁을 만들 때 주변에서 의장의 모티브를 얻었거나 다른 불교 미술품과 영향 관계가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1) 입상연판문대

고려 범종의 특징인 입상연판문대가 호암미술관 <동제풍탁>에서 확인되었다. 범종에서는 입상연판문대에 다양한 문양을 표현하는데, <무술(戊戌)명 범종>, 양평 출토 <범종>의 입상연판문대가 호암미술관 <동제

21 이영선, 2014, 앞의 논문, p.57.

풍탁>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범종과 풍탁의 입상연판문대는 연판 안에 2~3개의 연판을 중첩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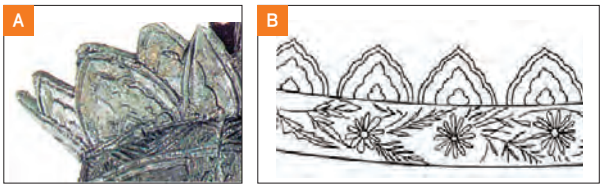


그림 5 입상연판문대(호암미술관 1995: 239;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452), A: 호암미술관 〈동제풍탁〉, B: 〈무술명 범종〉.

2) 불문

불문은 활 궁(弓)자가 서로 등을 맞댄 문양으로 황제를 상징하는 장문(章文)이다. 고려시대에는 불화 속 대세지보살이 들고 있는 경권 표지와 시왕의 의복 문양 등 불교 미술품에도 활용되었다. 이는 불문이 의미하는 바를 빌려와 불교의 보살과 시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보인다.[22] 선유리 유적 〈금동풍탁〉에는 투공된 장문이 확인된다. 〈금동풍탁〉의 장문은 풍탁의 용도로 볼 때 격조 높은 건물임을 나타내기 위한 요소일 가능성이 높다(사진 20).[23]



사진 20 불문(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83; 국립중앙박물관 2010: 172), A: 선유리 유적 〈금동풍탁〉, B: 〈시왕도〉(제4오관왕).

3) 삼환문과 삼원문

삼환문은 세 잎 클로버처럼 구멍 세 개가 삼각 구도로 연결되어 뚫린 문양이다. 고려시대의 사뇌사지 〈청동현향로〉(청주3593)와 서울 도봉서원 유적 〈청동현향로〉(서위H12414)에 삼환문의 연기 배출 구멍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무늬가 사뇌사지 〈동제풍탁〉(청주3565, 3566), 상명대학교박물관 〈금동풍탁〉(상명78) 등에서 확인된다(사진 21).

삼원문은 원형의 구멍 3개가 삼각 구도로 배치된 것으로 고려시대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청동향완〉, 경희대학교박물관 〈청동현향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풍탁 중에는 동국대학교박물관 〈동제풍탁〉(동국396), 리움 〈금동대탑〉에 매달린 제형 풍탁에서 확인된다(사진 22).

우리나라 향로는 향을 피우면 발생하는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구멍을 삼환문, 삼원문 등으로 표현하였다. 풍탁은 향로와 달리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 표면에 큰 구멍을 낼 필요가 없다. 풍탁 속 삼환문과 삼원문의 존재는 동시기 불교 법구에서 장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사진 21 삼환문(국립청주박물관,2014:54; 한성백제박물관,2018a:41), A: 사뇌사지 〈동제풍탁〉, B: 도봉서원 유적 〈청동현향로〉.



사진 22 삼원문(필자촬영), A: 동국대학교박물관 〈동제풍탁〉, B: 국립중앙박물관 〈청동현향로〉.

4) 영락

고대 인도인들의 장신구인 영락은 불교 미술품에서도 활용되었다. 호암미술관 〈동제풍탁〉, 경산 출토 〈동

22 이영선, 2014, 앞의 논문, pp.82~83.

23 선유리 유적 〈금동풍탁〉의 불문 아래에 불상문이 배치되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제풍탁>에서도 이를 찾을 수 있다. 호암미술관 소장품은 각 면마다 가운데 구멍이 뚫린 이중 원판 장식을 중심으로 양옆에 3개의 원형 구슬이 있다. 구슬은 V자로 배치되었으며 원판 윗부분에 원형 구슬이 1개 더 있다. 원판 구멍에는 안에서 밖으로 나온 끈이 있다. 단순하지만 사실적이고 양감이 강한 영락은 일본 개인 소장 <금동지장보살반가상>에서도 확인되었다.

경산 출토 <동제풍탁>은 구슬들이 Y자로 배치되었다. Y자 배치의 영락은 안동 신세동 출토 <소종>, 일본 아이치현(愛知縣) 만다라지(曼陀羅寺) <소종> 등 고려시대 소종에서 종종 보이는 표현이다(사진 23).



사진 23 영락(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74; 국립대구박물관 홈페이지), A: 경산출토 <동제풍탁>, B: 신세동출토 <소종>.

5) 기타

창호문, 범자문, 불보살상문, 화문, 동물문 등으로 꾸민 풍탁도 고려시대에 제작되었다. 특히 범자문, 불보살상문, 화문 등은 불교 미술품에서 많이 쓰이는 문양으로 풍탁에서도 자주 확인된다. 승탑에 활용되었던 창호문은 천덕사지 <금동풍탁>에 표현되어 있다. 범자문은 리움 <금동풍탁>, MET <금동풍탁>, 월남사지 <금동풍탁>, 상명대학교박물관 <금동풍탁>(상명78), 직지사성보박물관 <금동풍탁>에서, 불보살상문은 선유리 유적 <금동풍탁>, 경주 성동동 출토 <동제풍탁>, 상명대학교박물관 <금동풍탁>(상명79, 81) 등에서 볼 수 있다. 화문은 개성박물관 <동제풍탁>, 경산 출토 <동제풍탁>, 동국대학교박물관 <동제풍탁>에서, 동물문은 경주대학교박물관 <동제풍탁>에서 확인된다.

4. 치게의 사용

풍탁은 외부 자극에 의해 탁신과 내부의 연결쇠가 부딪치며 소리를 내는 방울이다. 연결쇠를 통해 소리를 내는 구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통일신라시대부터는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봉형 연결쇠는 직선에 가까운 세장방형이며, 제형 풍탁의 경우 탁신 내부가 방형이기 때문에 타원형인 종형 풍탁에 비해 연결쇠와 탁신이 부딪치는 면적이 작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연결쇠 하부에 별도의 장치인 치게를 추가해 닿는 면적을 넓히는 방식이 등장하였다. 치게는 고려 후기 제형 풍탁에서 확인되고 있어 적어도 12세기 후반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다.[24]

치게를 갖춘 풍탁은 천덕사지 <금동풍탁>, 월남사지 <금동풍탁> 등이 대표적이다. 치게는 장방형 막대가 가로로 교차하여 누워 있는 십(十)자형이며, 서로 겹치는 부분에 연결쇠가 관통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다. 치게는 제형 풍탁의 탁신 네 면에 골고루 부딪히게 설계되었으므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였을 것이다.

Ⅶ. 맺음말

전국 곳곳에 있는 사찰의 건물 처마 끝이나 석탑의 옥개석 끝자락에는 대부분 풍탁이 매달려 있다. 또 풍탁이 걸려 있는 모습이 사찰의 상징으로 활용되기도 하여 사람들에게 친근한 불교 법구로 여겨지고 있다. 대중적

24 이영선, 2014, 앞의 논문, p.89.

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엄구에 출토지와 시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계 관심은 높지 않았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풍탁 중 발굴조사 출토품이 비교적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조명되지 못했던 풍탁을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았다.

풍탁은 건물에 매달려 사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청아한 소리로 부처의 말씀을 대신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6세기를 전후한 무렵에 풍탁을 매단 사원의 모습이 확인되어 그 시작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풍탁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고악기 탁처럼 하부에 굴곡을 가지며 탁신과 풍판, 연결쇠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 건물에 따라 풍탁을 거는 위치와 방식이 달랐으며 석탑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풍탁의 크기도 달랐던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 풍탁은 고려시대 제작품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에는 가장 다양한 형태와 의장이 사용되었으며, 치게 사용을 통해 기술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 전통성이 엿보이는 1형 종형 풍탁은 전기(前期)에 주로 제작되었고 동 시대 중국의 영향으로 제형 풍탁이 전(全) 시기에 걸쳐 유행하였다. 또 사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불교 법구의 의장 요소를 차용하여 자유로우면서도 과하지 않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전개 양상은 고려 풍탁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형식, 구조, 의장 등을 계승하면서도 사원을 시각적·청각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불교 장엄구의 역할에 충실하였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妙法蓮華經』
- 『一切經音義』
- 『洛陽伽藍記』
- 『歷代三寶紀』

- 강진군·(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2,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주변 발굴조사 약보고서』, p.22
- 강진군·(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4, 「강진 월남사지 발굴조사 현황과 성과」, pp.1~27
- 경기도박물관·안성시, 2002, 『봉업사』, p.395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5, 『창녕 말흘리 유적』, p.140
- 국립김해박물관, 2011, 『땅 속에 묻힌 염원』, pp.33~47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한국의 범종』, pp.402~403, p.452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p.225, 292
- 국립중앙박물관, 2010, 『고려불화대전』, p.172
- 국립중앙박물관, 2013, 『고려시대 향로』, pp.30~37, 48~50
- 국립청주박물관, 2014, 『청주 사뇌사지 금속공예 Ⅱ』, pp.52~73
- 동아대학교박물관, 2001, 『소장품도록』, p.151
-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밝은 빛 맑은 소리 풍탁』, pp.8~11, p.19, 32, 44, pp. 48~49, p.61, pp.70~71, p.83, pp.120~132
- 성윤길, 2017, 「강진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에 대하여」『문화재』 50-1, 국립문화재연구소, pp.34~35
- 안춘배, 1987, 「居昌 壬佛里 天德寺址 및 陜川 界山里 發堀調査槪報」『영남고고학』, 영남고고학회, p.136
- 이수경, 2013, 「월남사지 조사성과와 고대 기와」『한국고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고대학회, pp.1~15
- 이영선, 2014, 「고려시대 풍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pp.21~22, 33~36, p.38, 43, 45, 50, 57, 60, 73, 80, pp.82~85, p.89, pp.135~138
- 이영선, 2016, 「4. 숭선사지 출토 金銅風鐸과 靑銅風板에 관한 고찰」『忠州 崇善寺址 6차 발굴조사 보고서』, 충주시·충청대학교박물관, pp.145~151
- 이용진, 2011a, 「고려시대 靑銅銀入絲香垸의 梵字 해석」『역사민속학』 36, 한국민속역사학회, pp.7~39
- 이용진, 2011b, 「韓國 佛敎香爐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351
- 이용진, 2012, 「고려시대 불교향완의 전통성과 독창성」『동악미술사학』 13, pp.151~180
- 이호관, 2003, 『日本에 가 있는 韓國의 佛像』, 학연문화사, p.250
- 정선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16, 『旌善 淨庵寺 Ⅱ』, p.201
- 조은경·한주성·남창근, 2007, 「전라도 석탑의 세부 기법 고찰」『문화재』 40, 국립문화재연구소, pp.288~293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안성 장능리사지』, pp.19~33, 71~73
- 최응천·김연수, 2003, 『금속공예』, 솔, p.47, 193, 256
- 최응천, 2004, 「고려후기 전환기의 미술 특집 - 고려후기의 금속공예」『강좌미술사』 2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128

참고문헌

- 최응천, 2011,「고려시대 금속공예」『금속공예에 깃든 고려인의 삶』, 국립제주박물관, pp.92~103
- 최응천, 2013,「日本에 있는 高麗 小鐘 考察」『동악미술사학』14, 동악미술사학회, pp.95~125
- 최응천, 2014,「세계 속의 찬란한 한국 공예명품」『제1기 국외문화재 아카데미 '국외 한국문화재 바로알기'』강의자료집, 국외소재문화재재단, pp.10~11
- 충청대학교박물관, 2013,『충주 숭선사지 6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pp.24~27
- 충청대학교박물관, 2016,『忠州 崇善寺址 6차 발굴조사 보고서』, 충주시·충청대학교박물관, p.152
- 충청대학교박물관·충주시, 2006,『충주 숭선사지 발굴조사보고서』, p.64, 362, pp.649~659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0a,「파주 반환미군기지(게리 오웬) 환경정화사업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1차 지도위원회 자료-」, pp.2~18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0b,『파주 반환미군기지(게리오웬) 환경정화사업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pp.3~50
- 한성백제박물관, 2018a,『천 년 만에 빛을 본 영국사와 도봉서원』, p.41
- 한성백제박물관, 2018b,『검이불루 화이불치 백제의 집』, p.173
- 호암갤러리, 1993,『高麗, 영원한 美』, 삼성문화재단, pp.4~7, p.27
- 호암갤러리, 1995,『大高麗國寶展: 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 삼성문화재단, p.239
- 홍대한, 2011,「신라와 고려시대 造塔 경전의 역할과 기능」『사학지』42, 단국대학교사학회, pp.101~149

- 敦煌研究院, 2001,『敦煌』21 建築畵卷, 香港: 商務印書館, p.29
- 程乃莲, 2012,「应县释迦塔的风铃及其造型艺术」『山东大同大學學報』Vol.26 No.4, 山东大同大學, pp.34~36

-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 http://museum.khu.ac.kr
- 국립광주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 http://gwangju.museum.go.kr
- 국립대구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 http://daegu.museum.go.kr
- 불교기록문화유산 아키아브 서비스 시스템 http://kabc.dongguk.edu/
- 연합뉴스, 2013.10.7, '충주 숭선사터에서 국내 최대 풍탁 출토'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터넷 홈페이지 http://encykorea.aks.ac.kr
- 한글대장경 인터넷 홈페이지 http://abc.dongguk.edu/ebti
- 北京古宮博物院 인터넷 홈페이지 www.dpm.org.cn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인터넷 홈페이지 www.metmuseum.org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2, June 2019, pp.292~307.
Copyright©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Development and Originality of Wind Chimes of the Goryeo Dynasty

Young-sun Lee
Seoul Baekje Museum
Corresponding Author : ysun263@gmail.com

Abstract

Buddhists have always tended to adorn and embellish Buddhist statues and their surrounding spaces in order to exhibit the grandeur and sublime nature of the Buddha. The various kinds of splendid instruments and implements used in such ornamentation are collectively called jangeomgu in Korean. Thus, the term jangeomgu encompasses articles used to decorate Buddhist statues, halos, and baldachin, as well as Buddhist banners and wind chimes, which are generally hung outside a building.

Wind chimes are still widely used at Buddhist temples. In China, judging from various structures such as the Wooden Stupa of Yongningsi in Luoyang and the Dunhuang Caves, wind chimes began to be used around the sixth century. As for Korea, Buddhism was first introduced from Chin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Koreans accordingly began to build Buddhist temples and buildings. It would appear that wind chimes came to be used around the time that the first temples were built. The oldest extant wind chime in Korea is the gilt-bronze wind chime of Baekje, discovered at the Mireuksa Temple Site in Iksan.

In general, Korean wind chimes dating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are classified into two general types according to their shape and elevation, i.e., those shaped like a Buddhist bell and those shaped like a trapezoid. As these two forms of wind chimes have influenced each other over time, those made during the Goryeo dynasty, having inherited the style, structure, and design of the preceding period, display such features. At the same time, the artisans who produced wind chimes pursued technical development and adopted free, yet not extravagant, designs. In particular, Goryeo wind chimes are characterized by original designs created through exchanges with other Buddhist art forms of the same period, such as the embossed lotus design band of Goryeo bells; the bullmun design, which served to display the grandeur of the royal family; the samhwanmun design, which consisted of decorating the interior of a Goryeo incense burner with three holes; Sanskrit designs; and designs inspired by the windows and doors of stone pagodas. In this way, the production of Goryeo wind chimes developed with a focus on purpose while being free of formal constraints.

This study started out from the fact that the largest number of Korean wind chimes were produced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refore, research on wind chimes should be based on those of the Goryeo dynasty, especially since fewer relevan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compared to studies on other forms of Buddhist art.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reasons for the production of wind chimes will be examined first,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the various styles of Korean wind chimes. The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investigation,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wind chimes produced during the Goryeo dynasty will be explored for each period.

Keywords wind chime, wind chimes of the Goryeo dynasty, Sanoesa Temple, Wollamsa Temple, Sungsunsa Temple

Received 2019. 03. 29 • **Revised** 2019. 04. 22 • **Accepted** 2019. 05. 06